



기사 출력 서비스

##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에 개원가 ‘반격’

임수를 회장, “무상의료 포플리즘 별상”...강력 대응

박애자 기자 (aj2214@medifonews.com)

2012-05-02 오전 6:02:04

최근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서울시사회에서는 적극 대응하기로 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.

서울시의사회(회장 임수홍)는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은 개원가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.

임수를 회장은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“야간휴일클리닉 등은 이미 오세훈 시장 때 도입하려다 실패한 제도인데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만도 안 된다”며 “특히 최근에는 운영이 어려워진 개원인들이 야간 및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데다 당직 의원 등이 있어 서울시에서 굳이 야간휴일클리닉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”고 지적했다.

이어 “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건소 기능을 축소하는데, 서울시의 이 같은 정책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”이라고 비판했다.

그러면서 임 회장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.

그는 “도시형 보건지소를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시설비, 인건비 등을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바우처 사업을 만들어 의사들의 협조를 통해 환자들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말했다.

임 회장은 현재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의료사회주의나 복지 무상의료 포플리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.

그는 “서울시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서울시의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”이라며 “만일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서울시의사회는 파업, 시위 등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7일 대한공공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“서울시를 공공의료로 대표할 수 있는 모델 도시로 만들겠다”는 포부를 밝혔다.

박 시장은 ▲호스피스 병상 운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▲도시보건지소 확충 ▲국가

필수예방접종 확대 ▲아간휴일 클리닉 개설 ▲시민응급구조사 10만 명 양성 ▲공공 산후  
조리원 도입 ▲고문 피해자 영양원 설립 등을 진행할 계획을 분명히 강조했다.

---

2012-05-01 오후 5:44:16 © < 저작권자 © Medionews ,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>

-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.